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1. 마음을 담은 언어

- (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9문제) -----1쪽
(2)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32문제)-----20쪽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 (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40문제)-----39쪽
(2) 허생전 (51문제)-----63쪽
(3) 초신성의 후예 (32문제)-----103쪽

3. 우리말 바로 쓰기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64문제)-----122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65문제)-----145쪽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1문제)-----168쪽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 (1) 향수 (50문제)-----177쪽
(2) 종탑 아래에서 (58문제)-----199쪽
(3) 두근두근 내 인생 (41문제)-----237쪽
(4) 수오재기 (43문제)-----264쪽

◆빠른 전체 정답 -----286쪽

◆해설 -----289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음운변동 현상” 설명 정리

㉑ 음운의 변동

- ① 개념: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 ②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남.

㉒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
말막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 → ■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	■ + ● → ■ + ▲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음운이 바뀌지 않는 부분: ■, ● / 음운이 바뀌는 부분: ▲, ●, ▲

㉓ 음운 변동의 예시

■ 교체

종류	내용
비음화, 유음화	<p>① 비음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ㄴ, ㄹ,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인 [ㄴ, ㄹ, ㅇ]으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물[궁물]</p> <p>(2) 비음 뒤에서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능력[능녁], 남루[남:누]</p> <p>(3)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바뀐 비음을 닮아서 앞의 ‘ㄱ, ㄷ, ㅂ’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백로[뱅노], 몇 리[면니]</p> <p>② 유음화: 비음인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됨. 설날[설:랄], 신라[실라]</p>
구개음화	<p>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예) 맏이[마지], 굳이[구지]</p>
된소리되기 (경음화)	<p>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가[국까]</p> <p>(2)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신지[신:찌]</p> <p>(3)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물질[물찐]</p>

3-(1) 올바른 발음과 표기 [이론편]

■ 탈락

종류	내용
모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있던 모음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1) 'ㄴ' 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ㄴ'이 탈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그- + -아 → 잠가 (2) 동음 탈락: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중 하나가 탈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아라 → 가라
두음 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음의 경우,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ㄴ'이 탈락함. ㉡ 여자(女子) (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ㄹ'이 탈락함. 양심(良心) (3) 한자음 '라, 래, 로, 뽀,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교체됨. 내일(來日)

■ 첨가

종류	내용
반모음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ㅿ'가 덧붙는 현상 • 음운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ㅿ'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도 허용됨. ㉢ 피- + -어 → 피어[피어/피어]

■ 축약

종류	내용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ㅎ'이 예사소리와 만나 거센소리[ㄱ, ㄷ,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 놓고[노코], 축하[추하]

자음 체계표_ 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소리 나는 위치)와 조음 방법(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자음 체계표를 알면 음운 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조음 위치					
	입술소리 (양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목청 소리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겹받침의 발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 연음 후 음운 변동이 적용됨.
- ㉠ 여덟에[어덟에].
값도[갑도 → 갑또]
- 어말 / 자음 앞 / 실질 형태소 앞
→ 겹자음 가운데 하나만 발음됨.

ㄱ[ㄱ], ㄴ[ㄴ], ㄹ, ㄹ, ㄷ[ㄷ], ㅂ[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자음이 발음됨. ㉠ 냇[냇], 앓대[안따], 값 없대[가법따] • '받-'은 자음 앞에서 [ㅂ] 으로 발음됨. ㉠ 밭대[밭따], 밭제[밭 찌] • '받-'은 '넙추하다[넙추카 다]', '넙동글다[넙동글 다]'의 경우 [넙]으로 발 음됨.
ㄹ[ㄱ], ㅁ[ㅁ], ㅂ[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 자음이 발음됨. ㉠ 닭[닥], 닭대[담따] •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됨. ㉠ 맑게[말께], 늙고[늘꼬]

▶ **표준 발음법 제10, 11항**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
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으로 발음한다.
- 제11항: 겹받침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
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
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바음화**

-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
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ㄱ, ㄷ, ㅂ + ㄴ, ㅁ
→ ㅇ, ㄴ, ㅁ + ㄴ, ㅁ

- ㉠ 국물[궁물], 들넌[든느],
좁는[중:느]
- ▶ 표준 발음법 제18항
- 비음 뒤에서 유음이 비
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ㅁ, ㅇ + ㄹ
→ ㅁ, ㅇ + ㄴ

- ㉠ 남루[남:누], 능률[능률]
- ▶ 표준 발음법 제19항
-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
고, 바뀐 'ㄴ'의 영향을 받
아서 앞의 파열음이 다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ㄱ, ㄷ, ㅂ + ㄹ
→ ㅇ, ㄴ, ㅁ + ㄴ

- ㉠ 백로[백노], 몇 리[면느],
금류[금누]
- ▶ 표준 발음법 제19항[붙임]

▶ **자료실**

연음_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
식 형태소가 올 때, 앞 음절
의 끝소리가 그대로 뒤 음절
의 첫소리로 옮겨 가는 현상
을 말한다. 음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연음은 음운 변
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환
경**

-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자음
이 뒤 음절로 넘어가 발음
됨[연음]
- ㉠ 꽃이[꼬치], 발을[바들]
- 단,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와 만나면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뀐. [구개음화]
- ㉠ 굳이[구지], 밭이[바치]
- 서로 다른 성격의 자음이 만
나면 서로 같거나 닮은 소리
로 변함. [유음화, 비음화]
- ㉠ 식물[싱물], 굴나무[굴라
무]
- 단, 같은 성격의 자음이 만
나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 ㉠ 동물[동:물], 향나무[향
나무]

▶ **도움말**

음운의 첨가에는 [ㄴ]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 ㉠ 맨- + 입 → [맨닙]
- 한- + 여름 → [한너름]

★ **두음 법칙**

- (1) 한자어 첫머리의 '녀, 뇨, 뉴, 니' → 'ㄴ' 탈락
 - ㉠ 여자, 연세, 익명
 - ⇒ 한글 맞춤법 제10항
- (2) 한자어 첫머리의 '라, 려, 래, 료, 류, 리' → 'ㄹ' 탈락
 - ㉡ 양심, 예약, 이별
 - ⇒ 한글 맞춤법 제11항

 **도움말**

두음 법칙에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즉, 한자음 '라, 래, 료, 뤼,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바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 미래(未來)→내일(來日)

★ **모음 탈락**

- (1) 'ㅡ' 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함.

ㅡ + ㅏ/ㅑ → ㅏ/ㅑ

- (2) 동음 탈락: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함.

ㅏ/ㅑ + ㅏ/ㅑ → ㅏ/ㅑ

 **도움말**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 탈락도 있다.

- ㉣ 날-+-는 → [나는]
- 놓-+-아 → [노아]

 **도움말**

용언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와 'ㅎ'이 만나 거센소리가 되는 현상.

ㅎ + ㄱ, ㄷ, ㅈ → ㅋ, ㅌ, ㅊ

- ㉥ 놓고[노코], 날지[나:치], 앉던[안턴]
- ⇒ 표준 발음법 제12항

ㄱ, ㄷ, ㅈ + ㅎ → ㅋ, ㅌ, ㅊ

- ㉦ 축하[추카],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꽃히다[꼬치다] ⇒ 표준 발음법 제12항 [붙임 1]

★ **반모음 첨가**

-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ㅣ'가 덧붙는 현상.
- 음운의 음기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ㅣ'가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도 허용됨.
- ㉧ 피-+-어 → 피어[피어/피어]
- 아니-+-오 → [아니오/아니오]
- ⇒ 표준 발음법 제22항 [붙임]

★ **된소리되기(경음화)**

- (1)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뀐.
- ⇒ 표준 발음법 제23항
- (2)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바뀐.
- ⇒ 표준 발음법 제24항
- (3)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뀐.
- ⇒ 표준 발음법 제26항

★ **구개음화**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ㄷ, ㅌ + 'ㅣ'나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 ㅈ, ㅊ

- ㉨ 굳이[구지], 솔이[소치]
- ⇒ 표준 발음법 제17항

비음화의 원리
· 식물[싱물]

기(여린입천장소리, 파열음)

↓ 조음 방법이 바뀐,

ㅇ(여린입천장소리, 비음)

★ **유음화**

비음인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됨.

$ㄹ + ㄴ \rightarrow ㄹ + ㄹ$

㉠ 설날[설:랄], 줄넘기[줄림끼]

$ㄴ + ㄹ \rightarrow ㄹ + ㄹ$

㉡ 신라[실라], 진리[질리]

☞ 표준 발음법 제20항

“음운변동 발음과 표기” 온라인 문제

1. 다음 단어들을 표기대로 발음할 때와 음운 변동에 따라 발음할 때를 비교해 보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을 말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해돋이</p>  <p style="text-align: center;">표기대로 발음할 때: []</p> <p>● 음운 변동에 따라 발음할 때: [해도지]</p>	<p style="text-align: center;">축제</p>  <p style="text-align: center;">● 표기대로 발음할 때: [축제]</p> <p>● 음운 변동에 따라 발음할 때: [축제]</p>
---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 음운 변동은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2. 다음 단어들을 발음에 보고, 발음할 때 달라진 음운과 음운 변동의 종류를 써 보자.

단어	발음	달라진 음운	음운 변동의 종류
진리	[질리]	ㄴ → ㄹ	유음화
국물	[궁물]	기 → ㅇ	비음화
잡히다	[자피다]	ㅂ + ㅎ → ㅍ	거센소리되기
축구	[축꾸]	기 → 끼	된소리되기
年(년) + 歲(세)	[연세]	ㄴ → 사라짐	두음 법칙
물난리	[물랄리]	ㄴ → ㄹ ㄴ → ㄹ	유음화
단히다	[다티다] → [다치다]	ㄷ + ㅎ → ㅌ → ㅊ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4. 다음은 잘못된 발음이 잘못된 표기로 이어진 예이다. 이를 통해 발음과 표기의 연관성을 알아보자.

가



나



다



라



(1) 위 장면에서 잘못 표기된 단어를 찾아 바르게 고치고,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

- 가: 어떡해 → 어떻게 [어떠케]
- 나: 폭발 → 폭발 [폭빨]
- 다: 잠궜 → 잠가 [잠가]
- 라: 곤란한 → 곤란한 [골 : 란한]

(2)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표기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표기도 잘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 유의하여 뉴스 기사문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바닷길로만 다섯 시간을 넘게 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땅 독도. 이젠 '브이월드(<http://www.vworld.kr>)'를 통해 독도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인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정밀 항공 촬영, 레이저 측량 기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측량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지형 구조가 복잡하고 기이한 독도의 모습을 실제와 똑같이 보여 줍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듯 한반도를 꼭 빠달은 한반도바위, 동해를 삼킬 듯 코를 바다에 드리우고 있는 코끼리바위 등 현장에서도 접근이 곤란하여 볼 수 없었던 독도의 모습을 마치 한 마리 독도 팽이갈매기가 된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2012. 10. 23.)

- 바닷길[바다궐/바단궐], 넘게[넘 : 궐], 독도[독또]
- 실제로[실제로], 않더라도[안터라도], 되었습니다[되얼썸니다/되얼썸니다]
- 측량[츄냥], 똑같이[똑까지], 빠달은[빠 : 달른]
- 곤란하여[골 : 란하여], 없었던[업썸턴]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입	•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니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개	(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 (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리	•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팍]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뉘뉘].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겉력짜]는 촌장이었다.

- ㉠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분얼만 크다.
- ㉣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 ‘배춧잎[배춘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줄넘기[줄럼끼]’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국화꽃[구과꼇]’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달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 ‘편입학[피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 광한루 ㉡ 흙만 ㉢ 대관령 ㉣ 달나라 ㉤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ㄹ)’, ‘ㄷ(ㄷ, ㅌ, ㄹ)’, ‘ㅂ(ㅂ, ㅍ, ㅅ, ㅈ, ㅊ, ㅌ, ㄹ)’, ‘ㅅ(ㅅ, ㅆ, ㅈ, ㅊ, ㅌ, ㄹ)’, ‘ㅈ(ㅈ, ㅊ, ㅌ, ㄹ)’, ‘ㅊ(ㅊ, ㅌ, ㄹ)’, ‘ㄹ(ㄹ)’, ‘ㅇ(ㅇ)’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Lx)’, ‘ㅇ(Ox)’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 |
|------|------|--------|----|
| ㉠ | ㉡ | ㉢ | ㉤ |
| 책상 | 신다 | 절기(節氣) | 흙다 |
| 국밥 | 젊다 | 발전(發展) | 넓다 |
| 각두기 | 달다 | 전등(前燈) | 밝다 |
| 압박감 | 끼었다 | 설계(設計) | 함다 |
| 야단법석 | 뛰어넘다 | 결과(結果) | 움다 |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닭은’은 (㉠), ‘닭 앞’은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필독 정리

Ⅰ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제정 이유

- ① 개념: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 놓은 어문 규범
- ② 제정 이유: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함.

■ 한글 맞춤법의 종류와 내용

총칙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법 규정
자모	한글 자모(字母)의 수와 순서
단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에 관한 것(단어의 발음법에 관한 규정) • 형태에 관한 것(단어의 표기법에 관한 규정)
띄어쓰기와 그 밖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경우에 대한 띄어쓰기의 원칙 • 한자어, 접미사 등 헛갈리기 쉬운 말들의 표기

Ⅱ 제제 정리

간체	설명문	성격	객관적, 예시적
제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		
주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이해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함. ② 한글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대신에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1항)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표기 대상: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한 것’
- ② 원칙

소리대로 적음.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 • 표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 • 표의주의, 형태주의

■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2항)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기본 원칙: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씀.
 - ↳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 ② 예외: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씀.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 ↳ 조사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씀.

㉔ 한글 맞춤법의 일부 조항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p>용언의 어간 + 접미사 (제19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간 + ‘-이’나 ‘-음/-ㅁ’ →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길이, 깊이, 걸음, 묶음 어간 + ‘-이’나 ‘-히’ → 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 많이, 악히, 밝히 어간 +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말 → 소리대로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머거리, 너무 <p style="text-align: right;">→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음.</p>
<p>명사 + 접미사 (제20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 + ‘-이’ →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곳곳이, 날날이 명사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 소리대로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가치, 꼬락서니

■ 띄어쓰기 관련 조항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띄어쓰기 단위에 대한 이해

- ①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므로 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음.
- ② 조사는 단어에 속하지만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쓰이고(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형식 형태소)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씀.

★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 (제1장 총칙 제2항)

단위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음.
원리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씀.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장 총칙 제1항)

대상	표준어
원리	소리대로 적음. (표음주의)
	어법에 맞도록 함. (표의주의)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교과서 원리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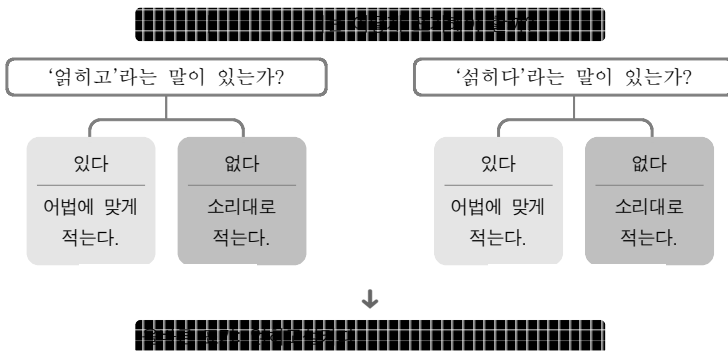


3. 띄어쓰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자.



4. 다음 활동을 통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탐구해 보자.

(1) 다음 탐구 과정에 따라 '얼키고설키다'의 올바른 표기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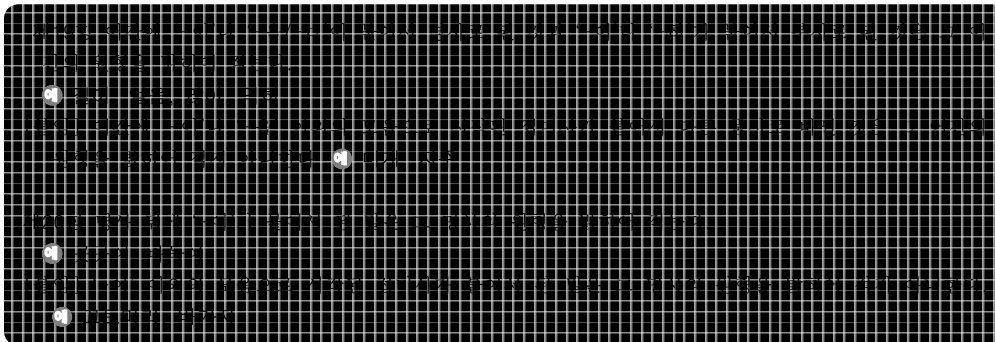
3-(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이론편]

(2)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말해 보자.



말의 뜻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5.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알아보자.



(1)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쓰시오.

- ㉠ 먼 데서 **다듬이/다듬이(○)** 소리가 들린다.-제19항
- ㉡ 친구가 온다기에 **마중(○)/맞웅** 을 나갔다.-제19항 [불임]
- ㉢ 산들바람에 **이파리(○)/잎아리** 가 흔들렸다.-제20항 [불임]
- ㉣ 사건의 실상을 **남나치/남날이(○)** 밝혀내었다.-제20항

(2) 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 보자.

앞은 힘이다.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알다'의 어간 '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알', '뭉다'의 어간 '뭉-'의 본 모양을 밝혀서 '뭉음'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다.

6. 다음 만화에 제시된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



▶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부칩다 [부치-] 「동사」

[1] […을 …에/에게] […을 …으로]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

[2] […을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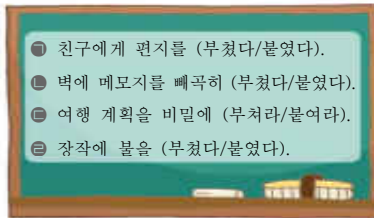
①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붙이다 [부치-] 「동사」

[1] […에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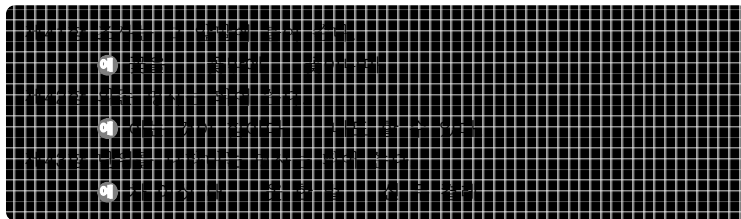
① '붙다[1] ①(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② '붙다[1] ③(불이 옮겨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 ㄱ 부쳤다: 부치다02[1] -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
- ㄴ 붙였다: 붙이다1① - '붙다[1]①(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 ㄷ 부쳐라: 부치다02[2]② -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 ㄹ 붙였다: 붙이다1② - '붙다[1]③(불이 옮겨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7.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여 바르게 띄어 쓰는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 써 보자.

- [소녀의 얼굴빛이 눈같이 하겠다.
● 친구와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 그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3-(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이론편]

㉠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십 년이 지났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2) 다음 글에서 띄어 써야 할 부분에 ∨ 표시를 해 보자.

형편없는 ∨ 찻감만 ∨ 아니라면 ∨ 차 ∨ 한 ∨ 잔으로도 ∨ 삶에 ∨ 대한 ∨ 잔잔한 ∨ 기쁨과 ∨ 감사를 ∨ 누릴 ∨ 수 ∨ 있을 ∨ 것이다. ∨ 요는 ∨ 그 ∨ 차가 ∨ 지닌 ∨ 특성을 ∨ 알맞게 ∨ 우릴 ∨ 때 ∨ 바로 ∨ ‘그 ∨ 차 ∨ 맛’을 ∨ 알 ∨ 수 ∨ 있다. ∨ 사람의 ∨ 일도 ∨ 마찬가지다. ∨ 인격에 ∨ 고정된 ∨ 어떤 ∨ 틀이 ∨ 있는 ∨ 것은 ∨ 아니다. ∨ 그 ∨ 사람이 ∨ 지닌 ∨ 좋은 ∨ 덕성을 ∨ 찾아낼 ∨ 수 ∨ 있다면 ∨ 그는 ∨ 내게 ∨ 좋은 ∨ 친구가 될 ∨ 것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에서

- ㉠ ㄱ, ㄴ, ㅁ ㉡ ㄱ, ㄴ, ㅁ ㉢ ㄴ, ㄹ, ㅁ
 ㉣ ㄱ, ㄴ, ㄹ, ㅁ ㉤ ㄴ, ㄹ, ㅁ, ㅂ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냐’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돼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되’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 ㄱ, ㄴ, ㄷ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ㄴ, ㄹ, ㅁ
 ㉤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 헛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다.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금 회전률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 확율(確率), 실패율(失敗率)
 ㉤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겨(X), 놓아(○)/노코(X)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목적 정리

㉑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 ① 개념: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된 듣기·말하기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
- ② 성격: 과거의 담화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함.

↓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함.

㉒ 비판적합 의사소통 문화 제도 만들기

- ① 오늘날 듣기·말하기의 문제점 점검하기
 - 일상생활 속 여러 담화 관습 성찰하기
 - 다양한 매체 속의 담화 관습 살펴보기
- ② 과거의 담화 관습 특성 성찰하기
 - 과거 선조들의 담화 관습 이해하기
 - 과거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㉓ 제제 정리

구분	학습 만화	성격	설명적
제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주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의 특징과 수용 태도		
특징	① 만화의 형식으로 학습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 ② 옛사람들의 글을 인용하여 과거의 담화 관습의 특징을 제시함.		

■ 속담에 나타난 과거 담화 관습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 ↳ 「1」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
 - ↳ 「2」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
-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
-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

↓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 선조들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음.

■ 옛사람들의 말에 나타나 있는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

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걱정)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 때에 맞게 말을 가려서 간결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역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는 일(남을 평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 말을 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과거의 담화 관습에 대해 지ניה 할 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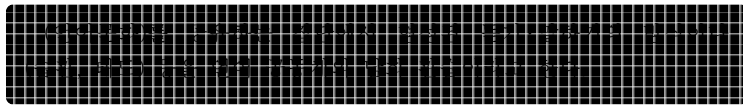
- 자신의 의사소통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
-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오늘날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다.
- 바람직한 담화 관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Ⅳ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

문제점	성찰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달. •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함. • 의성어를 축약하여 자음으로만 나타냄. • 문장 부호를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함. • 문장을 짧게 줄여서 씀. •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지나치게 축약하는 등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삼감. •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표기함. • 나의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며 표현함. •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함.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교과서 문제

1. 다음은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정의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2. 옛사람들의 말에 나타난 담화 관습을 다음 표에 정리해 보자.



-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다.
- 때에 맞게 할 말을 가려서 간결하고 신중하게 한다.



이덕무

- 말을 험하게 하지 않는다.
- 남을 평하는 일은 반드시 삼간다.(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지 않는다.)

3. 다음 활동을 통해 과거의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1) **가**와 **나**의 속담에서 강조하는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맞 이라.

가 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나 는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 나 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생각은 꼭 필요한 말 을 가려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음은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이 나타난 고전 소설의 한 장면이다. 유모가 전 한 부인의 말에 주목하여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앞부분 줄거리 지현[㉠]은 유 소사 대신에 청혼의 뜻을 전하려고 사 소저[㉡]의 집에 당 도해 있다. 지현이 유모를 통해 사 소저의 정숙함을 예찬하고, 사 소저 부친의 덕을 칭송하는 말을 전한다.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립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 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 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유모가 전한 부인의 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야, 왕립하다 • 누실 • 참으로 황공합니다. 	→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


4. 다음 활동을 통해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1)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헤리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같이 떠들어도 나만 걸려 서 혼나고.

 인선 그야 당연하지.

 헤리 무슨 소리야?

 인선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마치 칠관 굽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도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헤리 뭐? 칠관 굽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 는 네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인선 거기서 내 목소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데? 생각해서 말해 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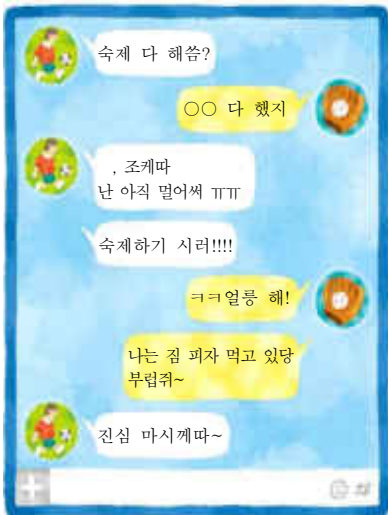
- 박정화·이정선, 《사춘기》에서

3-(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이론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장난스럽게 말하였다. •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하는 말을 하였다.

(2) 오늘날에는 가상 공간에서도 의사소통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와 ㉡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



- 문장 부호를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 문장을 짧게 줄여서 썼다.
-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지나치게 축약하는 등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하였다.

㉡



- 특별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
- 의성어를 축약하여 자음으로만 나타내었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1. 다음 속담 중 아래 만화에서 언급한 과거의 담화 관습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 짚는 개가 밥을 얻어먹는다.
- ㉢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 ㉤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2. <보기2>는 <보기1>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화를 고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헤리 :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같이 떠들어도 나만 걸려서 혼나고.
 인선 : 그야 당연하지.
 헤리 : 무슨 소리야?
 인선 :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마치 칠판 굽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도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헤리 : 뭐? 칠판 굽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는 네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인선 : 거기서 내 목소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데? 생각해서 말해 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 박정화·이정선, <사춘기> 에서

<보기2>

<문제점>
 헤리

- ㉦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 ㉧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 인선
-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장난스럽게 말하였다.
 - ㉨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하는 말을 하였다.

<고친 대화>

헤리 : 오늘 친구들과 같이 떠들었는데 나만 혼이 났어.
 인선 : ㉠저런, 좀 억울하고 속상했겠구나.
 헤리 : 응 속상했어. 내 목소리가 너무 튀니?
 인선 : ㉡아니, 내가 듣기에는 개성 있고 좋은데 뭐. 아마 네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고 밝아서 선생님께서 너만 떠든 것으로 오해하셨나 봐.

- ㉠ ㉠ ㉡ ㉡ ㉢ ㉢
- ㉣ ㉣ ㉤ ㉤

장안고등학교 (경기)

3.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 ㉠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며 말하는 것을 예외로 여겼다.
- ㉢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 ㉤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한영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고려할 때, 속담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기>

속담이란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을 말한다. 속담은 대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고, 일상에서 필요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깊은 뜻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 ㉠ 힘센 아이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이 낳아라.
- ㉡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 ㉤ 말로 온 공을 갚는다.

한영고등학교 (서울)

5. 유모가 전한 부인의 말에 주목하여 과거 담화관습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맥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한영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담화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현대의 담화 공동체는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변조시켜 현대 인민의 담화 인습을 창조해야한다.
- ㉡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및 격언을 통해 전통적 담화 관습을 엿볼 수 있다.
- ㉢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가 전제할 때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 ㉣ 담화 관습은 우리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
- ㉤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유동적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안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읽고 파악한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 ㉡ 말은 때에 맞게 간결하게 한다.
- ㉢ 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지 않는다.
- ㉣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다.
- ㉤ 상대에 따라 말을 가려서 신중하게 한다.

“향수” 문법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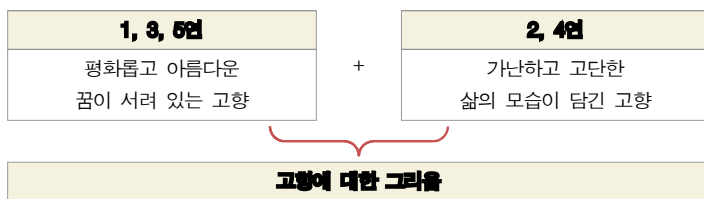
㉑ 서경 감택의 기법과 특성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하기’의 표현 양식 ·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며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 수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됨. ·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상이 쓰임. ·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임. ·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사용됨.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정서, 운율, 심상, 시어 등 · 표현 방법(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

㉒ 제재 정리

감택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제재	고향의 추억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토속적인 소재와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구성	<p>[1연]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 [2연]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 회상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회상 [5연]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p>		

■ < >의 짜임



■ 이 시의 배경과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

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대상
1연	해설피	넓은 벌, 실개천	고향의 풍경
2연	밤바람	질화로, 집베개	늙으신 아버지
3연	이슬	풀섬	과거의 화자
4연	따가운 햇살	이삭 줍던 곳	어린 누이와 아내
5연	성근 별, 흐릿한 불빛	초라한 지붕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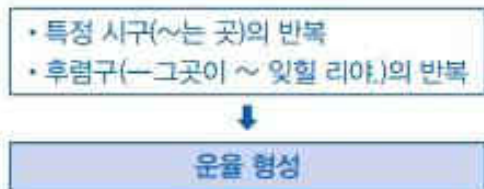
■ 시에 사용된 감각적 심상과 표현 방법

감각적 심상	시각적	얼룩백이 황소, 파이란 하늘빛,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성근 별, 흐릿한 불빛
	청각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 도란거리는
	촉각적	풀섰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표현 방법	의인법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설약법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직유법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 시에 나타난 운율



■ <향수>에 드러난 고향의 이미지

연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	고향의 모습
1연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평화롭고 정겨움.
2연	질화로, 늙으신 아버지	
3연	흙, 파이란 하늘, 풀섰 이슬	
4연	어린 누이, 아삭을 즐기는 아내	
5연	서리 까마귀, 초라한 지붕	

- ▶ 매 연마다 제시된 고향의 정경이 풍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줌.
- ▶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향수” 읽을 포인트

1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외인법을 통해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 제시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공감각적 표현(장각의 자각화)

잊힐 리 있었는가? — 잊힐 리 없다(설악법)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1번: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

후렴구 — ① 연 구분 및 시 전체에 통일성 부여 ② 운율 형성

③ 그리움의 정서 환기

2번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계절적 배경(겨울) - 시간의 흐름

비인 밤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공감각적 표현(장각의 시각화)

(넓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설맞은 길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늙으신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2번: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 회상

3번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공과 소망 이상 세계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이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풀썩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3번: 꿈 많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밤물결에 비유하여 사랑스럽고

구김살 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 (할유법, 직유법)

4번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한민족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 역동적 이미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구김살 없는 모습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스회하고 평범한

사철 밭 벼은 아내가) () 농사일로 바빠 벼선이나 땅밭을 행거 신들 사이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남.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4번: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회상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 시간의 흐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을 까마귀 가난한 고향 집

호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단련하고 정겨운 모습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5번: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

【시예 나

- 특징
- 후렴



“향수” 교과서 문제

1. 시 <향수>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자.

(1)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
1연	해설피	넓은 벌, 실개천	고향의 풍경
2연	밤바람	질화로, 질베게	늙으신 아버지
3연	이슬	풀섶	과거의 화자
4연	따가운 햇살	이삭 줍던 곳	어린 누이와 아내
5연	성근 별, 흐릿한 불빛	초라한 지붕	가족들

(2)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어떤 곳인지 말해 보자.

- 정겹고 평화로운 공간이다.
- 유년의 추억이 있는 농촌 마을이다.
-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란한 가족이 있는 곳이다.
-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곳이다.

2. 이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내 고향에 가고 싶다.

3. 시 <향수>를 통해 서정 감정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이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는/던 곳’과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의 반복


(2) 이 시에서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표현을 찾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감각적 심상	표현
시각적 심상	얼룩백이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성근 별, 흐릿한 불빛
청각적 심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도란도란 거리는
촉각적 심상	풀섶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함.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킴.


(3) 이 시에 쓰인 시어나 시구의 표현 방법과 의미를 살펴보자.

시구	표현 방법	효과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	의인법	실개천의 물소리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정겹게 느껴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설의법	‘잊힐 리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 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 리는 어린 누이	활유법, 적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물결’이 춤을 춘다고 비유함으로써 일렁이는 물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하여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을 줌


4. 다음은 <향수>의 시인과 가상으로 진행한 면담이다.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어떤 분위기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며 마지막 시인의 말을 완성해 보자.


 학생


선생님, <향수>는 언제 지으셨나요?


 시인


<향수>는 1927년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는 《조선지광》에 발표할 때 밝혀 둔 대로 1923년 3월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때가 1923년 5월이니까 유학 가기 직전이었던 거지요.


 학생


<향수>는 어떤 작품인지 선생님께 해설을 직접 듣고 싶어요.


 시인

<향수>는 낯선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내 마음속 고향의 따뜻한 정경을 그려 본 작품입니다.


 학생

<향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어우러져 잘 짜인 시인 것 같습니다. 작품을 창작하시면서 특히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셨나요?


 시인

고향의 모습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질화로’, ‘질베개’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연의 끝에 동일한 후렴구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환기하였습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질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이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섧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A]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권선고등학교 (경기)

1. 시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외적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 고향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과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 2,3,4연은 화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중심인물로 설정되어 제시되고 있다.

- ㉣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대조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 실개천, 황소, 질화로 등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들을 사용하였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2. 다음 글을 참고할 때,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0년대의 감상적 낭만주의 시나 민요시 또는 카프의 경향시와 달리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창작하였다. 특히 시어를 선택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찾으려 노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 ㉠ ㉠은 '낮은 소리로 자꾸 지껄이는'의 뜻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흐르는 '시냇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은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말을 달리고'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각의 청각화 같은 감각의 전이를 통해 밤바람 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 ㉢은 '파란'의 음절 수를 늘려 표현한 시적 허용을 통해 '하늘'의 상태를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 ㉣ ㉣은 '~ 같은' 직유법을 통해 '검은 귀밑머리'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간이 경과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감상하고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	대상	내용정리
㉠ 1연	넓은 별	실개천, 황소	평화롭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
㉡ 2연	겨울밤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
㉢ 3연	풀섧	어린 나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 4연	들판	누이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남
㉤ 5연	늦가을	가족	단란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

권선고등학교 (경기)

4. ㉔에 쓰인 심상이 표현되지 않은 시는?

- ㉑ 머리말에 찬물을 싸-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 ㉒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푸른 댕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㉓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 ㉔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㉕ 그 위에 셀루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권선고등학교 (경기)

5.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나열적인 앞의 내용들에 대해 통일감을 부여한다.
- ㉒ '잇힐 리야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㉓ 고향 정경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㉔ 시상을 매듭지으며 각 단계의 의미가 인과관계로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 ㉕ '그곳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각 연의 '-는(던) 곳'으로 끝나는 부분과 조응을 이룬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 줄기 ㉔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㉕초록색 램프를 달고 화물차가 지나간다

㉖어두운 밑물 위에 ㉗갈매기떼 우짖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헐어진 나무다리도
온-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산도 마을도 포플라 나무도 고개 속인 채
㉘*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 곳에

- [A] 언제 꺼질지 모르는
- [B]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 가는 고향 사람들

낯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㉙서러운 고향
고향 사람들의 한 줌 희망도
진달래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고는 다시 못 오기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 기대어 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지움도
한 떨기 ㉚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

- 김광균, 「향수」

*호젓한 : 쓸쓸하고 외로운.
*비오롱 : 바이올린.

- (1) [A], [B]에 나타난 고향의 공통적인 모습을 '~이다'의 형식으로 쓰시오.
- (2) [B]에 쓰인 '촛불'이 의미하는 것을 한 단어로 쓰시오.
- (3) ㉔ ~ ㉚ 중에서 '얼룩백이 황소'에 나타나는 심상과 같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로 쓰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섧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부명고등학교 (경기)

7. 각 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내용
㉠ 1연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
㉡ 2연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
㉢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회상
㉤ 5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고향집

부명고등학교 (경기)

8. 다음을 참고하여 ㉠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것은?

'감각의 전이'는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김광균, '와사등'
- ㉣ 해와 하늘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
- ㉤ 온 몸에 햇볕을 받고 깃발은 부르짖고 있다.
보라, 얼마나 눈부신 절대의 표백인가.
우러러 감은 눈에는 불꽃인 양 뜨거워라.
- 이호우, '깃발'

부명고등학교 (경기)

9. <보기>는 위 시를 읽은 학생의 감상문이다. ㉠~㉣ 중 감상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는 일제에 의한 지배가 한창이던 1923년 3월, 정지용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낯선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시인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운 향기들로 표현하는 후각적 심상이 눈에 띈다. 또한 고향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짚베개', '함초롬' 등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각 연의 끝에 배치된 동일한 후렴구는 시의 리듬감을 배가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히 드러낸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속에 ㉣순우리말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한자어를 다수 사용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서정문학의 주된 구성 요소인 화자, 사건, 운율, 심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 ㉠ ㉡ ㉡ ㉢ ㉢
- ㉣ ㉣ ㉤ ㉤

“백마 이야기” 문체 정리

㉑ 서사 갈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하기’의 표현 양식 • 서술자를 통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꾸며 냄. •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 배경 속에서 사건의 주체로서 행동함. •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됨. •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함.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시점, 서술자 등

㉒ 제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액자 소설 (*교과서에는 내부 이야기만 수록 됨.)
사건	1인칭 주인공 시점
상징	사실적, 상징적, 향토적
배경	(시간) 한국 전쟁, (공간) 전북 익산 시내
주제	전쟁의 상처와, 사랑과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쟁의 폭력으로 비롯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함. ② 소년과 소녀를 등장시켜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냄. ③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해 작품의 사실감을 높임. ④ ‘백마 이야기’를 삽입하여 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부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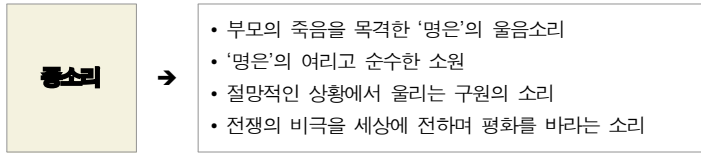
■ < 여태에서 >의 구성

발단	‘나’가 어느 봄날 익산 군수 관사에서 ‘명은’을 처음 만남.
전개	‘나’와 ‘명은’은 만남을 이어 가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함.
위기	‘나’와 ‘명은’은 함께 교회에 가서 종소리를 듣고, ‘명은’이 ‘나’에게 직접 종을 치게 해 달라고 부탁함.
결장·결말	‘명은’과 ‘나’가 종답 아래에서 종을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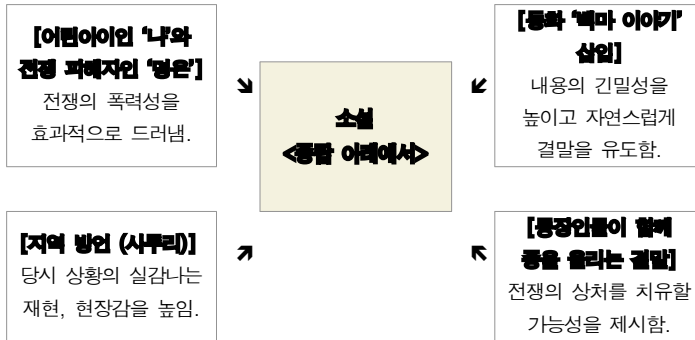
■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명은	주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을 울려서 우화 속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려는 소망을 지님. • 혼자서는 종탑까지 갈 수도 없고 종을 울릴 수도 없음.
‘나’ (건호)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고만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혼자 감당함. • ‘명은’을 보호하며 ‘명은’이 소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줌.
딸고만이 아버지	방해자이자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나’와 ‘명은’을 떼어 내려다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됨.

■ '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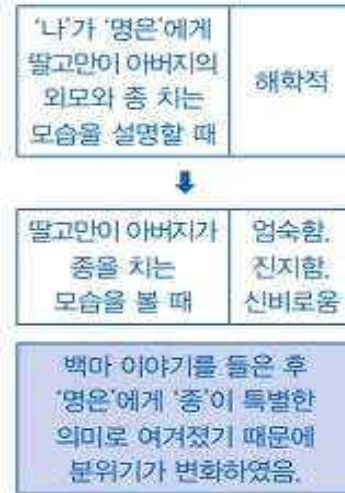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 소녀에 대한 첫인상

- 양팔을 나란히 뻗은 괴상한 자세를 하고 다님.
-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단발머리를 하여 서울 아이라고 단정함.
-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러 서울내기들은 모르는 게 많다고 여김(시골 소년인 서술자('나')가 서울 아이들에게 갖는 부정적 시각이 드러남.)

▶ 종 치는 장면의 분위기



▶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명은'	주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을 울려서 동화 속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려는 소망을 지님. • 혼자서는 종탑까지 갈 수도 없고 종을 울릴 수도 없음.
'나' (건호)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고만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혼자 감당함. • '명은'을 보호하며 '명은'이 소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줌.
'딸고만이 아버지'	방해자이자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나'와 '명은'을 떼어 내려다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됨.

『종소리』의 의미

-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의 울음소리를 뜻함.
- '명은'의 간절하고 순수한 소원을 의미함.
- 구원의 희망을 상징함.
- 전쟁의 비극을 세상에 전하며 평화를 바라는 소리임.

『명은』의 새로운 소망

- '나'가 들려준 백마 이야기
- '딸고만이 아버지'가 울리는 신앙 교회 종소리

종을 직접 쳐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됨.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의 효과

- ① '명은'과 '나'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줌.
- ②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웃음을 유발함.
- ③ '나'와 '명은'이 교회에 가서 종소리를 듣고 함께 종을 치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짐.

동화 '백마 이야기'의 의미와 기능

주제	종소리를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난 백마	
인물	기사	백마의 은혜를 저버림.
	백마	필요가 없다고 버림받음, → '명은'과 대응함.
	성주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심판하고 백마를 보살펴 줌.
소재의 의미	종탑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취녕쿨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 → '나'와 대응함.
	종소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

↓

효과

- 일상적인 교회의 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
- 억울한 상황에 처한 '백마'를 '명은'과 대응시키고,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취녕쿨'을 '나'와 대응시킴으로써 내용의 긴밀성을 높임.

소설의 복선

하룻길에 먼 길을 에돌아 집으로 향함.

↓

'나'가 '계집애(명은)'를 만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함.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

환갑 정도의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 옛이야기를 나눔.

내부 이야기

어린 시절 '나'(최건호)와 '명은'의 이야기

『작품에 드러난 시대적·사회적 배경』

- ① 밥을 굶쳐 먹을 정도로 전쟁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이 많음.
- ② 전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고, 전쟁에 대한 편파적 보도를 함.
- ③ '성명, 귀말' 등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됨.

↓

한국 전쟁(1950~1953)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줌.

『작품의 공간적 배경』

전쟁을 알리는 시청 게시판 벽보를 행인들이 읽음.

만세 주장 고무발을 아이들이 훑쳐 먹음.

'나'가 '귀말', '성명'과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함.

한국 전쟁 당시 전복 익산 (전선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

전쟁의 피해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마을에까지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물의 심리 변화

사건	인물의 심리	
'나'가 전황 소식을 '명은'에게 들려주었다가 '명은'이 화를 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황함. 호의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남. • 뒤늦게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리고 자신의 잘못을 느우침.
	명은	전쟁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음.
'나'가 하루 동안 관사에 가지 않음.	나	'명은'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아 마음이 복잡함.
	명은	무기력하고 쓸쓸함.
'나'와 '명은'이 다시 군수 관사에서 만남.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 종소리를 듣는 '명은'의 모습에 감동을 받음. • '명은'이 자신을 알은척해 주어 안도함.
	명은	'나'를 다시 만나 반가움.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직접 제시 (말하기)	간접 제시 (보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해 줌. • 독자들이 인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 인물에 대한 정보가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되며, 이 때문에 극적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음.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의 의미

- ① '명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
- ② '명은'에게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
- ③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어긴 것 → '명은'에게 상처를 줌.
- ④ '나'가 전쟁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 → 전쟁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여 사람들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줌.

소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첫 번째 만남	소극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를 몰래 관찰만 함. • 소녀가 눈뜰장님임을 알고 소녀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도망침. 	
↓	
두 번째 만남	적극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에게 공을 던져 줌. • 소녀의 물음에 답하며 소녀에게 궁금한 것을 물음. 	



'나'가 달음박질을 한 이유

'나'가 소녀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정신 없이 집으로 뛰어간 이유
↓
소녀가 앓을 보지 못하는 눈뜰장님(당달봉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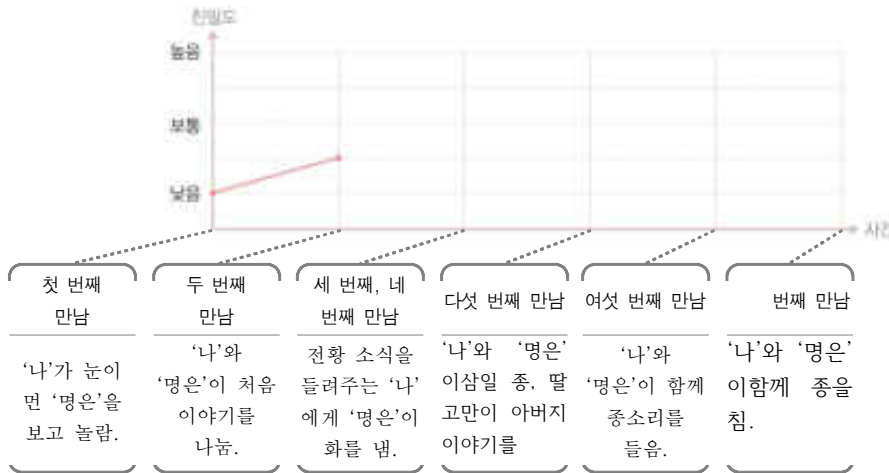
“종답 아래에서” 인물의 성장

1. 소설 <종답 아래에서>를 통해 서사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중심인물인 ‘나’와 ‘명은’이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 보자.

	♥ 이름: 건호 ♥ 나이: 열 살가량		♥ 이름: 명은 ♥ 나이: 열 살가량
♥ 외양: ‘명은’보다 키가 조금 크고, 얼굴이 못생긴 편이다.		♥ 외양: 희고도 곱상한 얼굴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하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 성격 • 솔직하고 순박하다. • 눈치가 없고 상황 파악이 느리다 •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도와주려는 착한마음씨를 지녔다		♥ 성격 • 예민하고 낮을 많이 가린다. • 전쟁 이야기를 싫어한다. • 참혹한 전쟁의 경험 때문에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2) ‘나’와 ‘명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 전개를 파악해 보고, 도표에 두 인물의 친밀도 변화를 표시해 보자.



(3) 이 소설의 배경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배경이 인물들에게 끼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	배경
• 시간: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중공군 참전, 1.4 후퇴 • 공간: 익산 군수 관사, 익산 군청, 신광 교회	한국 전쟁 당시 전라북도 익산 시내

→ ‘나’ •익산은 전쟁의 후방 지역으로, 이곳에 사는 ‘나’는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전황소식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여긴다.

→ 명은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눈이 머는 등 직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

4-(2) 종답 아래에서 [이론편]

(4) 다음 장면을 참고하여 이 소설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을 말해 보자.

㉠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 내기 지지배를 웃게코롬 맨들었다! 나는 득의양양해서 뉘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중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맘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나’이다. 이러한 서술자는 ‘나는 득의양양해서 뉘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처럼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가). 하지만 다른 인물인 ‘명은’의 심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단지 웃는 모습을 묘사하거나(가), ‘명은’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소원을 빌라고 채근할 뿐이다(나). 즉, 다른 인물들의 심리는 관찰이나 추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한다.

(5) (1)~(4)를 바탕으로 하여 이 소설의 주제를 말해 보자.


전쟁으로 상처 입은 ‘명은’의 처지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나(건호)’를 통해, 전쟁의 상처가 사람 사이의 공감과 연민, 사랑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2.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 학생의 말을 완성해 보자..


이 소설에서 ‘백마 이야기’의 기능은 무엇일까?




건호가 들려주는 ‘백마 이야기’에 명은이가 관심을 둔 까닭은 무엇일까?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백마가 마치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백마처럼 자신도 종을 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게 아닐까?



아! 이 작품의 결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백마 이야기’는 건호와 명은이가 종을 함께 치는 소설의 결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

“충만 안보안” 탐구 문제

1.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짐작해 보자.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중공군의 개입 이후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빠져 있던 때)

2. 소설에서 실제 지명을 그대로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소설 속 사건이 실제 장소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밤이 깊도록 소녀의 모습이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 군수 관사에 사는 소녀가 눈장님이라는 사실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 자기 또래의 예쁜 서울 소녀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4. '나'가 쓰는 사투리가 이소설에서 어떤 효과를 낳는지 생각해 보자.

- '나'의 순박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전북 익산이라는 공간적배경이 드러나며 사실감과 현장감이 느껴진다.

5. '명은'은 전쟁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전쟁 중에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정신적충격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전쟁을 떠올리면 두렵고끔찍하고 무서운 감정이 들 것이다.

6. 퇴원하는 '명은'에게 '나'가 주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인가?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

7. 전황 소식을 전하는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 것처럼 몹시 신이 나서 흥분해 있다.

8. '명은'의 손아귀에서 힘이 풀린 까닭은 무엇일까?

- '명은'이 '나'가 들려준 전쟁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받았기 때문이다.
- '나'가 들려준 전쟁터의 참혹한 소식에 놀랐기 때문이다.

9. 이 장면에 나타난 '명은'과 '나'의 행동과 표정을 상상해 보자.

중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며 평온한모습으로 서 있는 '명은'의모습을 '나'가 철책 밖에서감탄스러워하며 몰래 지켜보 았을 것 같다.

10.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세인물('명은', '명은이 외할머니', '나')의 심리는 어떠한가?

- 명은: '나'를 책망하는 척하면서 내심 반가워하고있다.
- 명은이 외할머니: 자신의당부를 잊고 '명은'에게 전쟁 이야기를 꺼냈던 '나'를 꾸짖는 듯하면서도 다시 '명은'을 찾아와 준 것을고마워하고 있다.
-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명은'에게 미안한 마음이드는 한편, '명은'이 자신을다시 받아 주어 안도하고있다.

11.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는 사건 전개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갈등을 겪었던 '나'와 '명은'이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지고, '딸고만이 아버지'에게 호기심을 느낀 '명은'이 교회에 가는 계기가 된다.

12. '명은'이 왜 이 말에 관심을 보였을까?

백마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여, 자신도 백마처럼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소원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13. 자신이 '건호'라면 '명은'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자.

- '명은'의 심정에 공감하고, 좋아하는 친구의 부탁이므로 들어줄 것이다.
- 어린아이들이 몰래 종을 치기 어려우므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거절할 것이다.

14. '나'가 '명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까닭은 무엇일까?

- 종을 올려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명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 '나'는 '명은'의 유일한 친구이므로 부탁을 들어줄 사람도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 '명은'이 종을 치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 "부모님을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지내게 해 주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답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답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답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칩녕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칩녕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나)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내 손으로 종을 쳐 보고 싶어.”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여!”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레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뭇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소리를 지껄인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경원고등학교 (부산)

1. 작가가 명은을 눈이 먼 소녀로 설정한 까닭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은?

- ㉠ 전쟁의 폭력성과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고통을 보여 주기 위해
- ㉡ 전쟁이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 ㉢ 전쟁의 참혹함은 어린이에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 ㉠ 전쟁은 어른들의 것으로 어린이들과는 관련이 없어야 함을 보여 주기 위해
- ㉡ 전쟁 중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경원고등학교 (부산)

2.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보기에 역세고 모질게
- ㉡ ㉡ :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끈덕지고 질기게
- ㉢ ㉢ : 구구한 말을 하여 가며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일
- ㉣ ㉣ :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 ㉤ ㉤ :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이

경원고등학교 (부산)

3. 작품 전체에서 종소리가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가)에서 ‘나’와 ‘명은’에 대응하는 대상을 각각 찾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괴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궤멸시켰다는 등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1·4 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열추 되돌아와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괴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자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나) 시청 앞을 떠나 시공관 네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 군청이었다.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타타타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관사 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췄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행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야릇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다)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담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당달봉사다!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 주장 지예밥을 훔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라) “으쩌다가 그러코롬 당달봉사는 되야 뿌렸다냐?”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 나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 냈다.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내기라서 별수가 없었다.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꺾 돌려 관사 쪽을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담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얘. 얘.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진동한듯 줄행랑을 놓았다.

<중간 부분 줄거리>

군수 관사에서 줄행랑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갔다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난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은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마) “중부 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다야.”

“듣기 싫단 말야! 제발 그만두란 말야!”

[A]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터버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불안간 어안이 병병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꼴도 보기 싫어! 가 버려! 가란 말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 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맑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부리나케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잡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의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 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바)

[B]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마치 종 줄의 일부분인 양 양바탕한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쳐다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 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종 치는 일이 거반 끝나 갈 무렵쯤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가망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무래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 딱 한 차례만 종 줄을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 주곤 했다. 그약스레 뒤쫓아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놀려 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은이가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사)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

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침녕굴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침녕굴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아)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내 손으로 종을 쳐 보고 싶어.”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여!”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칭을 모지락스레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겁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 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뭣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자)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맘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귀머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구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찧을 적마다 늦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 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은 대로 붙어 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창 종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방 걷어치고 나서야 양바탕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향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매 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 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새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땡그렁 땡.....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권선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
- ㄴ.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낸다.
- ㄷ.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제시한다.
- ㄹ. 고유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 사건의 주체로서 행동한다.
- ㅁ.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독자의 추리와 상상을 유도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권선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은 전북 익산 시내이다.
- ② 명은이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눈이 머는 피해를 입었다.
- ③ 밥을 훔쳐 먹을 정도로 전쟁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다.
- ④ ‘나’는 전방에서 떨어진 곳에 살며 전황 소식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여겼다.
- ⑤ ‘나’와 명은이는 주변 어른들을 통해 전쟁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새로운 사건이 생길 것임을 보여준다.
- ㉡ ㉡ : 전쟁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 ㉢ : 소녀를 훔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한 행동이다.
- ㉣ ㉣ : 소녀가 '당달봉사'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 ㉤ : 명은이가 노파의 감시 속에 외롭게 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의 [A], [B]에서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ㄴ. [A]는 나와 명은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ㄷ. [B]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ㄹ. [B]는 서술자의 관점에서 인물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ㅁ.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 ㄱ, ㄴ
- ㉡ ㄱ, ㄷ
- ㉢ ㄴ, ㄷ
- ㉣ ㄷ, ㄹ
- ㉤ ㄹ, ㅁ

권선고등학교 (경기)

8. 윗글의 '백마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침녕쿨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 ㉡ 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이다.
- ㉢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성주는 '나'와 대응된다.
- ㉣ '백마 이야기'는 평범한 교회의 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 '백마 이야기'는 명은이와 '나'가 함께 종을 치는 소설의 결말에 인과성을 높여준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9. 다음을 참고할 때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어떤 일을 이끄는 인물을 '주도자', 그 일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인물을 '조력자', 그 일을 실현하는데 해를 끼치는 인물을 '방해자'라고 한다.

- ㉠ 명은이는 종을 올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소망을 지닌 '주도자'이다.
- ㉡ 명은이는 '주도자'이지만 혼자서는 종탑까지 갈 수도 없고 종을 올릴 수도 없다.
- ㉢ '나'는 명은이를 위해 딸고만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을 혼자 감당하는 '주도자'이다.
- ㉣ 딸고만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리자로 명은이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자'이다.
- ㉤ 딸고만이 아버지는 결말 부분에서 '나'와 명은이를 떼어 내려다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되는 '조력자'로 변한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1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윗글에서 명은이의 눈이 먼 것으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를 서술하시오.

<조건>

- '~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의 형식으로 쓸 것
- 윗글의 '시간적 배경'을 포함할 것

(2) 윗글에서 명은이와 '나'가 함께 종을 올리는 결말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가능성을 제시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두근두근 내 인생” 분석 정리

㉑ 극 갈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여주기’의 표현 양식 • 서술자 없이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
종류	희곡, 시나리오, 민속극 대본, 드라마 대본 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예술(연극, 영화, 오페라 등)을 위한 대본 •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그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줌. • 대체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 극의 주제가 제시됨. •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구성 요소	등장인물, 대사, 행동, 지시문, 해설 등

㉒ 극 갈래와 서사 갈래의 차이점

- ①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며,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 ③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장면의 변화가 자유롭다.
- ④ 컷(cut)과 장면(scene) 단위로 구성된다.

㉓ 제지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지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		
주제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적으로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서사 구조를 통해,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과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②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다루면서도 무겁지 않은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독자에게 감동을 전한다. ③ 청춘을 맞기도 전에 늙어 버린 주인공이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섬세한 감정들이 잘 드러난다. 		

■ 글의 구조와 주제

메일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던 ‘아름’과 ‘서하’의 이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이 갖는 삶에 대한 소망 •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가치
투병 중인 ‘아름’과 이런 아들을 돌보는 ‘대수’, ‘미라’의 이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 가족의 소중함

■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서하’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병 중인 ‘아름’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줌. • ‘아름’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함. • ‘서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아름’에게 상처가 됨.
개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서하’에게 받은 충격을 표출하는 대상 • ‘대수’와 갈등을 겪게 되는 표면적 원인

■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인물	선천성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함.	선천성 조로증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년이 삶에 대해 갖는 애착과 설렘을 보여 주어 삶의 소중함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 제목	투병 중인 '아름'의 가슴을 설레게 한 인생의 순간을 의미함. '아름'이 서하의 편지를 받으면서 설렘, 기쁨, 삶에 대한 열망 등을 느끼게 되는 내용을 제목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냄.
사건	'아름'과 메일을 주고 받았던 '서하'가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사건 전개	'서하'의 실체로 아름이 상처를 받았지만, 투병 생활을 하던 '아름'이 '서하'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에서 두근거림과 삶의 의욕을 느낌.
장면	하늘 공원에서 '아름'이 '대수'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함께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장면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표현 방법	S# 52에서 아름이의 편지 내용을 몽타주 기법으로 제시	'아름'의 목소리와 함께 편지에 언급한 내용이 이미지로 제시되어 '아름'의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짐.

Ⅰ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요 구성 요소

인물	선천적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함.	→ 한 사람의 인생(젊음과 늙음)을 압축해서 보여 줌으로써 성장과 그에 수반되는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함.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제목	→ 조로증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년이 삶에 대해 갖는 두근두근한 애착과 설렘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
사건	'아름'과 메일을 주고 받았던 '서하'가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사건 전개	→ 메일을 보낸 서하 때문에 '아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그 메일은 '아름'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애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함.

Ⅱ S# 52-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

- 푸른 하늘의 하얀 물개구름을 볼 때
-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요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
-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았을 때
-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 여름날 엄마가 아바 등목을 해 주며 찬물을 꺼냈는 걸 볼 때
- 아빠와 함께 초콜릿풍한 금성을 볼 때
-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

↓

소박한 일상의 순간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아름'의 간절한 바람이 느껴짐.

★ 등장인물들의 성격

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을성이 많고 어른스럽다. • 이성에 관심을 보인다. • 예리고 섬세하다.
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애가 강하다. • 당당하고 긍정적이다.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하는 면이 있으나 아들을 깊이 사랑한다. • 유머러스하고 자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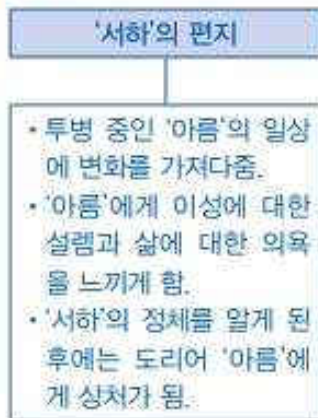
■ '아름'의 상상에 나타난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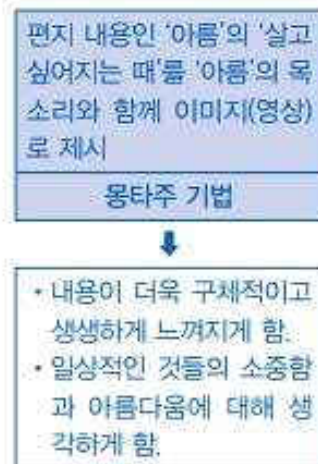
★ 사건의 전개에 따른 '아름'의 심리 변화와 갈등 양상



■ 소재의 의미와 기능



★ S# 52-몽타주 기법의 효과



■ '아름'에게 들리는 '서하'의 목소리



☞ 참고 자료 시나리오 용어

- S#(Scene Number): 장면 표시 번호
- NAR.(Narration):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
- E.(Effect): 효과음,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를 활용한 효과
- Ins.(Insert):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것
- Cut to: 컷으로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
- C.U.(Close Up): 어떤 배경이나 인물이 두드러지게 화면을 확대하는 것
- DIS.(Dissolve):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나타나도록 장면을 전환하는 것
- Montage: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때어 붙여 편집하는 것
- F.I.(Fade In):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것
- F.O.(Fade Out):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것
- O.L.(Over Lap): 앞 화면에 뒤의 화면이 포개어지는 것
- PAN.(Panning):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것

★ **시나리오의 특성**

- ①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며,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 ② 서술자의 개입 없이 주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표현됨.
- ③ 상영을 전제로 하므로, 촬영을 고려한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됨.
- ④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장면의 변화가 자유로움.
- ⑤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없음.
- ⑥ 컷(cut)과 장면(scene) 단위로 구성됨.

컷	카메라가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 샷(shot).
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의 최소 단위. 같은 장소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이나 대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컷으로 구성됨. • 'S#'으로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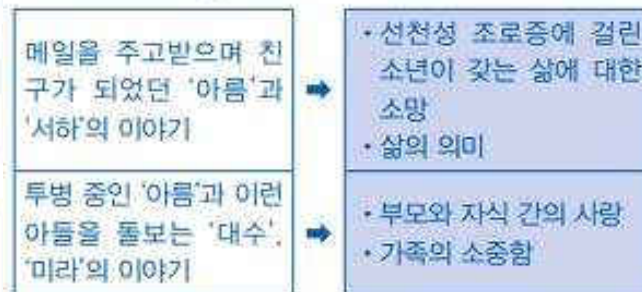
★ **S# 59~S# 63에 나타난 주요 갈등과 해소 과정**



《두근두근 내 인생》의 구조



★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제**






“두근두근 내 인생” 드라마 읽기

1. 장면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면에 나타난 ‘아름’의 심리를 추측해 보자.

	중심 내용	‘아름’의 심리
S# 16	‘아름’이 자신을 힐끗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함.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고 창피함.
S# 17~18	‘서하’에게 전자 우편을 받고 ‘서하’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림.	가슴이 뛰고 설렘.
S# 49	‘아름’이 ‘서하’가 보낸 손 사진에 자신의 손을 포갠.	‘서하’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리움·착잡함 등을 느낌.
S# 59	‘서하’의 정체를 안 후 계임에 몰두하다가 ‘대수’, ‘미라’와 갈등함.	‘서하’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표출됨.
S# 63	‘대수’와 함께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빌.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풀고, 행복감을 느낌.

2. 시나리오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 극 감독의 특성을 알아보자.

(1)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사나 행동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 보자.

인물	인물의 대사나 행동	인물의 성격
 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 때 부모님께 내색하지 않고 혼자 건디는 모습(S# 17) ‘서하’의 편지를 받고 설레어하는 모습(S# 17~18) 살고 싶어지는 때를 나열한 대사(S#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을성이 많고 어른스럽다. 또래 이성 친구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순수한 소년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삶에 대한 따뜻한시선을 지니고 있다.
 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걸어도 돼.”(S#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아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고 긍정적이다.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기 때문에 ‘아름’과 다투고 흐느끼는 모습(S# 60) ‘아름’과 같이 하늘 공원에서 별을 보는 모습(S#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웁하는 면이 있으나 아들을 깊이 사랑한다. 유머러스하고 자상하다.

(2) S# 59~S# 63에 나타난 주요 갈등이 무엇인지,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파악해 보자.

‘서하’의 실체를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아름’이 게임에 열중하다가 이를 말리던 ‘대수’와 갈등한다. 이후에 ‘아름’은 하늘 공원에서 울음을 통해 가슴속 울분을 쏟아 내고, ‘대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3) 다음은 이 시나리오의 원작 소설 중 일부이다. 잘 읽고, 서사 갈래와 비교하며 극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나는 모니터 속 메일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보았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열일곱.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속 시간들에 대해 내가 다른 이름을 붙여 주고 싶었어.’ ‘여름에도 겨울이 있고, 가을에도 봄이 있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쳐 자꾸 울렸다. 그래서 그 애 말대로 내가 정말 산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같은 나이야, 같은 나이야…… 봄이 있대, 봄이 있대…….’

내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아 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남자아이였음, 그랬으면 달랐을까? 아마 달랐을 거다. 부끄럽지만 사실 그랬다. 그 아이는 왠지 여느 여자애들과는 달라 보였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❶ 윗글을 ‘S# 18’과 비교해 읽고,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 원작 소설: 서술자인 ‘나(아름)’가 ‘서하’가 보낸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 시나리오: ‘서하’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때문에 설레고 혼란스러워하는 ‘아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❷ ❶을 바탕으로 하여 극 갈래와 서사 갈래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해 보자.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서사 갈래가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관객에게 직접 보여 준다.

“두근두근 내 인생” 장면 분석

1. ‘서하’가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 ‘아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성애에 대한 설렘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흥분된 상태였을 것이다.

2. ‘아름’에게 ‘서하’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계속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름’이 또래의 소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 굉장히 설레고, ‘서하’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아름’은 왜 ‘서하’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을까?

시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감을 느끼는 ‘서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4. ‘아름’이 나열한 ‘살고 싶어지는 때’에서 느껴지는 바를 말해 보자.

-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인생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다.

5. ‘아름’이 평소와 달리 게임에 몰두하며 ‘미라’의 말을 듣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서하’의 실체를 알고 나서 받은 충격, 세상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 등으로 건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7 아픔이의 방(낮-해 질 녘)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픔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대수가 눈치챌까 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한다.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약에 취해 꾸부린 채 까무룩 잠이 드는 아픔이.
 그때 ‘띵’ 전자 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잠에서 깨는 아픔이.
 접속해 보면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이서하’, 제목은 ‘아픔에게’.
 아픔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편지를 열어 보면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진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열여섯 살,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전자 우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 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란 걸 알고 알려 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픔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일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아픔 : 이서하?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온 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픔이.

S# 18 아픔이의 방, 집 앞 골목길(낮-밤)
 서하(소리) :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환청으로 아픔이의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하의 목소리. / 아픔이,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는 환청.

컷 투(cut to). 침대에 누워 있는 아픔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서하의 목소리.

서하(소리) : (농염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별떡 일어나는 아픔이. 눈 밑에 눈그늘이 내려와 있고 졸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컷 투(cut to). 집 앞 골목길의 아픔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서하(소리) : (청순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경원고등학교 (부산)

1. 윗글의 갈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여주기’의 표현 양식에 해당한다.
- ㉡ 희곡, 민속극이나 드라마의 대본이 포함된다.
- ㉢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 과거형으로 드러나는 사건 중심으로 전개된다.
- ㉤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극의 주제가 드러난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2.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갑자기 밀려온 심장의 통증 때문에
- ㉡ ㉡ : 보낸 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 ㉢ ㉢ : 보낸 사람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때문에
- ㉣ ㉣ : 서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에
- ㉤ ㉤ : 밤중에 심장의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원고등학교 (부산)

3. 다음은 이 시나리오의 원작 소설 중 일부이다. <보기>의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지를 밝히고, ‘S# 18’와 <보기>를 통해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공통점은 한 가지를, 차이점의 경우 ‘서사 갈래는 ~, 극 갈래는 ~’ 형식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

<보기>

나는 모니터 속 메일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보았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열일곱,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속 시간들에 대해 내가 다른 이름을 붙여 주고 싶었어.’ ‘여름에도 겨울이 있고, 가을에도 봄이 있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쳐 자꾸 울렸다. 그래서 그 애 말대로 내가 정말 산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같은 나이야, 같은 나이야…… 봄이 있대, 봄이 있대…….’

내 토래의 여자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아 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남자아이였음, 그랬으면 달랐을까? 아마 달랐을 거다. 부끄럽지만 사실 그랬다. 그 아이는 웬지 여느 여자애들과는 달라 보였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59 아람이의 병실(오후)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fade-in).
유혈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람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람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람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곤 없어 보인다.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레 아람이에게 다가간다.

미라 : 밥 먹고 하지?
아람 : 이따 먹을게요.
미라 :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아람 : 금방 끝나요.
미라 : 벌써 두 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아람 : 내버려 뒹요, 좀!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 만 아람이.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람이의 병실을 힐끔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대수 :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람 :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러니까 이따 먹는대잖아요.
대수 : 너 그거 안 내려놔?
아람 : (게임에만 몰두한다.)
대수 : 아빠 말 안 들려!
아람 :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뿌리치며)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대수, 미라 : (놀라 아무 말도 못 한 채)
아람 : (붓물 터지듯이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는데, (게임기 흔들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왜 이까지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S# 60 병원 비상계단(오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그의 넓은 등이, 그의 꼭 쥔 주먹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다.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드득 떨어진다.

[A]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뒤에서 안아 주며,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포갠다.
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는 미라.

S# 61 아람이의 병실(다음날 오후)
침대에 누운 아람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미라 : (아람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아람 : (창 쪽 바라보며, 고개 젓는다.) 괜찮아요.
컷 투(cut to). 침대에 걸터앉은 대수와 누워 있는 아람이.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다.
4시를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람이의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람이.
아람 : 아빠.....
대수 : 응?
아람 :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늘 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대수, 아람이를 안타깝게 본다.

S#63 하늘 공원(밤)
하늘 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 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내리는 아람이. 대수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 보면, 어느새 저만치 아람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당황하는 대수, 아람이를 부르며 쫓아가고 두 사람의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망대 부근에 다가가서야 겨우 아람이를 붙잡아 세우는 대수.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워 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다.

대수 : 아름이 너! (혼내려다 눈물범벅인 아름이를 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름 : 흑흑..... 너무 좋아서요.

대수 : 대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름 : (거친 숨을 내쉬고 눈물 흘리며) 네, 그냥 너무 좋아서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와서 좋고. 다..... 다..... 전부 다 좋아요.

대수 : 뭐?

아름 : (대수 품에 와락 안기며) 너무 좋아요. (울음이 완전히 터진 채로) 엉엉.....

경원고등학교 (부산)

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현재형으로 기술된 지시문을 활용하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특정한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5. 뒷글을 영화화할 때, 감독이 연기자들에게 주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S#59 : '미라'와 '대수'는 '아름'의 말을 들은 후 놀라며 마음 아파하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 ㉡ S#59 : '아름'이 게임을 하는 부분에서는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 주세요.
- ㉢ S#61 : '미라'는 병실에 '아름'이 혼자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해야 합니다.
- ㉣ S#63 : '대수'는 앞서 뛰어가는 '아름'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 ㉤ S#63 : '아름'은 마음속 깊은 슬픔을 표현해야 하므로 통곡과 같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해 주세요.

경원고등학교 (부산)

6.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고 있다.
- ㉡ 작품 밖의 내레이터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 특정 인물의 독백을 활용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 ㉣ 동일한 인물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만 제시하여 두 인물이 동일한 심리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7. 다음의 시나리오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S#	
C.U.	
O.L.	
F.I.	
F.O	
E.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수오재기” 문체 특징

㉑ 고승 갈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려 주기’의 표현 양식 ·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
종류	수필, 서간, 일기, 기행문 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글의 형식이 자유로움. ·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됨. · 자기 고백적이며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남.
구성 요소	글쓴이의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 등

㉒ 한문 수필의 종류

논(論)	사리를 판단하고 논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밝히는 글로, 지금의 논설문에 해당함. 논리를 세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임.
기(記)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한 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여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님.
서(序)	사물의 발단과 끝맺음을 적은 글로, 서문(序文) 또는 서(叙)라고도 함.
설(說)	구체적인 사물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을 표현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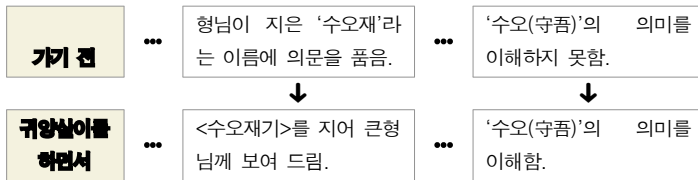
㉓ 제제 정리

갈래	한문 수필, 기(記)	성격	자성적, 회고적, 교훈적
제제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		
주제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특징	①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함. ②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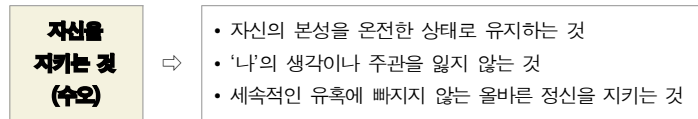
■ ‘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천하인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거나, 세상에 무수히 많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잃어도 됨.
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수 없음.		굳게 지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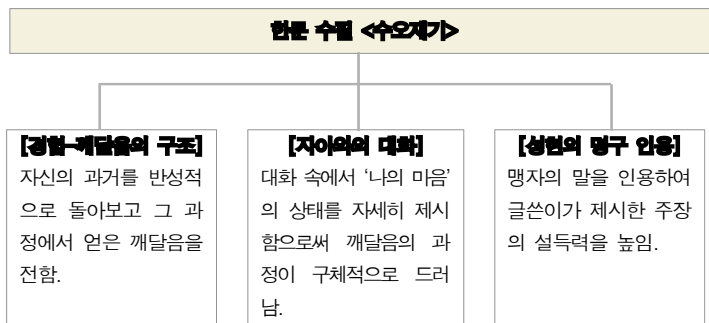
■ **경험과 깨달음**



■ **'자신을 지키는 것'의 의미**



■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글쓰이의 인식**

- 천하 만물: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고 대체가 가능한 것도 있음.
→ 지킬 필요가 없음.
- '나': 쉽게 떠나갈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름.
→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지켜야 함.

★ **글쓰이의 깨달음의 과정**



■ **'나'의 의미**

이 글에서는 '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상적 나'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 나'이다. '현상적 나'는 '외면적 나'로서 상황과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나'이고, '본질적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이다. 글쓰이는 '본질적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오재기” 모티브 읽기

1. 이 글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부분	중심 내용
㉠	수오재(守吾齋),~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	장기로 귀향 온 이후 ~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
㉢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나’를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한 반성
㉣	유독 내 큰형님만이 ~ 수오재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

2. 이 글 <수오재기>를 통해 교술 감례의 특성을 알아보자.

(1)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계기로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말해 보자.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품고 장기로 귀양을 와서 그 의문점에 대해 깊게 생각한 경험이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2)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을 파악해 보자.

① 이 글에 제시된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대상	‘나’	밭, 집, 꽃나무와 과일나무, 책, 옷과 양식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함.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음.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음.

② 글쓴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과거 시험 공부에 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는 벼슬살이에 열중하느라 바빠 지내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③ ①과 ②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여 이 글의 주제를 말해 보자.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3) <수오재기>와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인 정약용의 개성을 파악해 보자.

신유박해(1801년) 이후 다산은 18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외견상 그의 인생은 끝났다.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다산은 지나간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홀연 깨닫는다. 이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지독한 고통과 고독과 자기 응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 이후 그의 삶이기도 하다.

- 박혜숙 옮김, 《다산의 마음》에서

- 자신을 엄격하게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기 수양의 계기로 삼고 있는 점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다.

3.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 글쓴이가 또 다른 자아인 ‘나’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끄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 대화(질문)를 통해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더 철저하고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글의 끝부분에 인용된 맹자의 말이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성현인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수오’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으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수오재기” 탐구 문제

1. 글쓴이는 왜 ‘수오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품었는가?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인데, 글쓴이는 ‘나’라는 존재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있어서 떠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굳이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 글쓴이가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상에무수히 많아 대체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대체 가능성’이 기준이다.

3. 글쓴이와 둘째 형님이 잃어버린 ‘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신의 참된 본성

4.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자.

- 자신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다.
-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나)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땀땀 땀땀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쩌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오재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권선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독자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
- ㉡ 다른 갈래에 비해 형식이 엄격하다.
- ㉢ 깨달음, 인생관, 개성 등이 드러난다.
- ㉣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는 방식이다.
- ㉤ 경험이나 내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 ㉡ (나)는 두 대상의 공통속성을 대비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 (다)는 구체적 경험을 사용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 ㉣ (라)는 대상의 의미를 깨닫고 글을 쓰게 된 내력을 피력하였다.
- ㉤ 전체적으로 논리적 사유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나'는 '수오재'에서 홀로 지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 ㉡ '나'는 '수오재'라는 이름을 끝내 이상하다고 여겼다.
- ㉢ '수오재'는 큰형님이 글쓴이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 ㉣ '수오재'는 형님이 맹자의 글 속에서 인용한 이름이다.
- ㉤ '나'는 장기로 귀양 온 후야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았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4. (나)에 제시된 소재 중 글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 ㉠ 집과 밭
- ㉡ 동산의 꽃나무
- ㉢ 성현의 경전
- ㉣ 옷과 양식
- ㉤ 음악소리

권선고등학교 (경기)

5. ㉠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 ㉡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 ㉢ 자기 본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 ㉣ 꾸준히 공부를 함으로써 관직에 진출하는 것
- ㉤ 위험이나 무력 앞에서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권선고등학교 (경기)

6. 다음의 두 질문에 맞는 답을 서술하시오.

(1) (나)에서 글쓴이가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을 2어절로 표현할 것 • ‘기준은 ~(이)다.’의 형식을 쓸 것

(2) 윗글에서 글쓴이가 보는 두 가지의 ‘나’에 관해 서술하고 어떤 ‘나’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밝히시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적인/~한) 나와 ~하는(~적인/~한) 나’의 형식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나)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공공 뭉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라)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꿈쩍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열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마)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를 태현(太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㉔수오재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주엽고등학교 (경기)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가) : 다른 사람이 한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㉒ (나) : 자신에 대한 물음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㉓ (다) :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㉔ (라) : 익명의 대상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 ㉕ (마) :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주엽고등학교 (경기)

8.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 :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을 온 곳으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공간이다.
- ㉒ ㉒ : 다른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 ㉓ ㉓ : 자아의 본래적 모습과 마음에 평정을 잃게 하는 유혹의 대상이다.
- ㉔ ㉔ :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곳이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형상화한 공간이다.
- ㉕ ㉕ : 큰형님이 있는 곳으로 세속적인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다.

주엽고등학교 (경기)

9. 다음은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㉑, ㉒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조건 : ㉑, ㉒ 각각 20자 이내로 쓰시오.)

천하 만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고, (㉑) →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음.
‘나’	쉽게 떠나갈 수 있으며, (㉒) → 따라서 꼭 지켜야 함.

주엽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㉒ 천하 만물 중 지켜야 할 대상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㉓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㉔ ‘나’라는 존재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있어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 ㉕ 과거 벼슬아치가 되어 바쁘게 지내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①③ 2.① 3.④ 4.② 5.(1)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청을 전달하였다.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상대를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다. (2)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지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6.④ 7.④ 8.② 9.④ 10.③ 11.② 12.② 13.④ 14.① 15.⑤ 16.④ 17.③ 18.(다)에서 화자의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배고픈 상태를 묻고 이 가게의 떡볶이가 맛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함께 떡볶이를 먹고 가지 않겠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화자의 이런 이면적 의도를 ㉢청자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해서 말했어야 한다. 19.① 20.② 21.④ 22.① 23.⑤ 24.① 25.③ 26.③ 27.② 28.㉠은 준언어적 표현이고, ㉢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29.④ 30.③ 31.㉠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32.⑤ 33.④ 34.③ 35.① 36.② 37.③ 38.④ 39.⑤

1-(2) 영혼이의 역사 누리방

1.③ 2.④ 3.첫째,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둘째, 특정 세대에서만 쓰는 말을 사용하여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⑤ 5.②6.① 7.소통 8.③ 9.② 10.① 11.③ 12.⑤ 13.② 14.① 15.③ 16.(1)청기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하였다. (2)자신이 찾은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3)청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17.④ 18.⑤ 19.① 20.② 21.⑤ 22.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3.③ 24.⑤ 25.③ 26.⑤ 27.② 28.⑤ 29.④ 30.① 31.① 32.③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1.① 2.② 3.② 4.(1)글쓴이가 등나무에서 얻은 감응 (2)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응 5.① 6.③ 7.④ 8.⑤ 9.㉠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응이다. ㉢작가가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10.⑤ 11.③ 12.③ 13.② 14.④ 15.① 16.② 17.① 18.② 19.② 20.① 21.④ 22.⑤ 23.② 24.① 25.③ 26.④ 27.③ 28.⑤ 29.㉠는 자연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필자의 건축관은 자연이 주인

이 되는 것이다. 30.③ 31.① 32.④ 33.⑤ 34.⑤ 35.④ 36.④ 37.① 38.② 39.④ 40.⑤

2-(2) 허생전

1.① 2.④ 3.④ 4.㉠돈은 도를 살찌울 수 없다. ㉢돈은 정신을 괴롭힌다.5.④ 6.④ 7.② 8.③ 9.⑤ 10.④ 11.③ 12.④ 13.① 14.① 15.③ 16.④ 17.④ 18.② 19.② 20.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21.② 22.③ 23.① 24.④ 25.③ 26.① 27.④ 28.㉠예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없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29.⑤ 30.⑤ 31.① 32.④ 33.② 34.④ 35.⑤ 36.④ 37.④ 38.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야 한다. 청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 39.③ 40.② 41.④ 42.② 43.④ 44.㉠유동 45.㉠교류 46.④ 47.① 48.① 49.③ 50.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해라.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라. 청나라와 교류해라. 51.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2-(3) 초신성의 후에

1.④ 2.② 3.③ 4.② 5.① 6.① 7.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하여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8.① 9.⑤ 10.⑤ 11.④ 12.초신성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사람들이다. 13.④ 14.③ 15.③ 16.(1) 초신성이-것이다. (2)땀-한다. 17.① 18.④ 19.⑤ 20.③ 21.⑤ 22.② 23.⑤ 24.③ 25.④ 26.① 27.④ 28.⑤ 29.⑤ 30.④ 31.③ 32.원소들의 기원

3-(1) 올바른 발음과 표기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교],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퀵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62.④ 63.① 64.[되엿습니다], [되엿습니다]가 가능한 발음이다. [되엿습니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엇'이 [엿]으로, 된소리되기와 비음화에 따라 '습'이 [슴]으로 발음된 것이다. 여기에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면 [되엿습니다]로 발음된다.

3-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1.① 2.④ 3.⑤ 4.③ 5.② 6.② 7.⑤ 8.살살히→ 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 싹둑싹둑, 회전롤→ 회전롤, 촛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 백분율, 댓가→ 대가, 빼어야→ 빼야(빼어야) 13.② 14.③ 15.③ 16.⑤ 17.④ 18.⑤ 19.(1)맞다 (2)형용사의 어간 '알-'에 접미사 '-ㄹ'이 결합하여 명사로 된 것이므로 어간에 '-음/-ㄹ'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 만마리가, 선롤→선울, 몹씨→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②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ㄹ'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①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짜를▶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③ 46.몽둥그러→몽둥그러:㉠, 씹슬한→씹슬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②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 뵈요 ㄹ: 순대국→ 순댓국 65.②

3-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⑤ 2.② 3.① 4.④ 5.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6.① 7.⑤ 8.② 9.③ 10.④ 11.③

4-1) 향수

1.④ 2.② 3.④ 4.① 5.④ 6.(1) 가난하고 힘겨운 삶, (2) 희망, (3) ㉠, ㉡ 7.① 8.④ 9.③ 10.② 11.③ 12.⑤ 13.③ 14.④ 15.③ 16.㉠ '~는/ 던 곳', 후렴구 ㉡ 각 연의 끝, 연과 연 사이 17.③ 18.② 19.한밤중 문밖으로 들리는 '밤바람 소리'(청각)를 사람이 '말을 달리고' 있는 모습(시각화)으로 표현한 것으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20.④ 21.④ 22.③ 23.④ 24.⑤ 25.④ 26.② 27.윗글에서 후렴구를 통해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둘째, 형식적 측면에서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 통일감을 준다. 셋째, 리듬감 형성에 기여한다. 28.③ 29.⑤ 30.③ 31.④ 32.③ 33.② 34.② 35.③ 36.⑤ 37.① 38.③ 39.첫째, 연의 구분 및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둘째, 운율을 형성한다. 40.⑤ 41.⑤ 42.⑤ 43.㉢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유리창을 통해 아이의 영상을 본 황홀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다. 44.① 45.④ 46.(1) '~는/던 곳'과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후렴구의 반복 (2)연과 연을 구분한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47.④ 48.③ 49.② 50.㉠에서는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난다. 51.설의법이 쓰였으며, 반복으로 인해 운율이 형성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4-2) 종탑 아래에서

1.① 2.⑤ 3.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를 의미한다. '나'는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침녕쿨'에 대응하며, 명은은 필요가 없다고 버림받는 존재인 '백마'에 대응한다. 4.② 5.⑤

6.② 7.⑤ 8.③ 9.③ 10.(1) 어린 아이인 '명은'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충격에 눈이 먼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이 더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2)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1.④ 12.④ 13.③ 14.② 15.② 16.① 17.㉠ 나, ㉡ 명은, ㉢ '나'와 '명은'이 종을 올리는 결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18.④ 19.① 20.② 21.⑤ 22.② 23.①② 24.(1) 명은, (2) 한국 전쟁으로 '명은'이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것, (3) 나, (4) 하늘 25. 뒷글에서 '나'는 '명은'이 종을 쳐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수난시대'에서 외팔이인 아버지 '만도'는 외다리가 된 아들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나'와 '만도'는 인물이 처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6.④ 27.③ 28.③ 29.⑤ 30.④ 31.② 32.② 33.④ 34.⑤ 35.③ 36.③ 37.④ 38.② 39.① 40.① 41.④ 42.㉠ : 익산이라는 후방의 마을에 사는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전쟁의 피해가 미친다는 것을 통해 전쟁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 :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 43.③ 44.② 45.⑤ 46.④ 47.② 48.⑤ 49.④ 50.(1)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하여 현장감을 높인다. (2)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3) 내용의 긴밀성을 높이고 결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51.① 52.⑤ 53.⑤ 54.① 55.㉠ 선물 보따리 ㉡ 무섭고 두려운 것 56.④ 57.⑤ 58.④

4-(3) 두근두근 내 인생

1.④ 2.⑤ 3.<보기>의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은 내용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서사 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관객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4.④ 5.② 6.⑤ 7.S# 장면 번호, C.U.(Close Up)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두드러지게 화면에 확대되는 것, O.L.(Over 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F.I.(Fade In) 화면이 차차 밝아짐, F.O.(Fade Out) 화면이 차차 어두워짐, E.(Effect) 효과음으로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8.① 9.㉠는 '아름'이 자신을 속인 서하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는 자신에게 소중한 기

역과 감정을 느끼게 해 준 '서하'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아름'의 마음을 보여준다. 10.① 11.⑤ 12.② 13.⑤ 14.④ 15.④ 16.⑤ 17.㉠에 '몽타주 기법'으로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를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8.④ 19.③. 20.③ 21.(1) 몽타주, (2)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2.긍정적 측면 : 투병 중인 '아름'이 이성애에 대한 설렘과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 부정적 측면 : '아름'이 '서하'의 정체를 알고 상처를 받으며 배신감을 느낀다. 23.② 24.④ 25.(1) 뒷글은 배우의 행동, 대사 등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이 전개된다. 이에 비해 <보기>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이 전달된다. (2) 뒷글에서는 인물의 행동, 대사 등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제시한다. '아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태블릿 피시를 꺼내는 행동을 보여주어 '서하'의 답장을 기다리는 초조한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자신의 심리에 대해 직접 말하고 있다. '내가 정말 산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부끄럽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② 27.③ 28.⑤ 29.② 30.① 31.③ 32.④ 33.③ 34.② 35.㉠몽타주 ㉡인서트 ㉢디졸브 ㉣페이드 인 ㉤내레이션 36.① 37.② 38.① 39.⑤ 40.③ 41.④

4-(4) 수오재기

1.② 2.② 3.⑤ 4.⑤ 5.④ 6.(1) 대체 가능성, (2)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현상적인 '나'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나' 두 가지 '나' 중에서 본질적인 '나'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7.④ 8.② 9.㉠ 대체가 가능함, ㉡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름. 10.② 11.② 12.① 13.⑤ 14.④ 15.① 16.① 17.⑤ 18.③ 19.④ 20.① 21.[A] 아라비아의 사막, [B] 열렬한 고독, [C] 운명처럼 대면하게 된 '나' 22.⑤ 23.⑤ 24.① 25.③ 26.② 27.① 28.⑤ 29.③ 30.② 31.③ 32.① 33.④ 34.④ 35.⑤ 36.③ 37.③ 38.⑤ 39.③ 40.④ 41.⑤ 42.[A]는 글쓴이의 또 다른 자아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43.[B]는 참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의 근거로 성현인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끝 -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① ③

▶ ① 청소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에 해당 ㉠ 꾀꾀하다며 상대를 비방하고 있는 말하기

2.①

▶ 준언어적 표현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준(반)언어 vs 비언어 (★)

ㄱ.언어적 표현: 문자 혹은 음성 언어
 ㄴ.준(반)언어적 표현: 억양, 고저, 어조, 속도 등
 ㄷ.비언어적 표현: 손짓, 몸짓, 표정, 옷차림 등

3.④

①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의 높임말을 사용하여 공적인 말하기의 모습을 드러냄 ②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원인이 세대별로 조사된 것은 없음 ③ 청중의 사연은 있어도 가상의 사례는 없음 ⑤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지는 않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구어체 vs 문어체(문장체) (★)

ㄱ.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줄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극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ㄴ.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함)

*뭘 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4.②

▶ 명찬은 부탁을 완곡하게 청하고 있지 않아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다.

6.④

▶ 부루퉁한 표정을 지은 재영은 한 번 더 연락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은 적절히 사용한 셈임

7.④

▶ 떡볶이를 같이 먹고 싶다는 나의 간접적인 말하기 방식을 친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함

8.②

▶ (가):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에 ㉠이 적절, (나): 빌려주기 싫다는 침묵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 적절. (다): 제대로 듣지 못한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이 너무 빠르다고 했기에 ㉢가 적절. (라): 상대를 비방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 (마): 상대의 말에 전

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

11.②

▶ 준언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부루퉁한 표정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함

12.②

① 동의하며 말하기는 일치점을 높이는 말하기임
 ③ 겸손하게 말하기는 청자의 이익을 높이는 말하기임
 ④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는 화자의 부담을 높이는 말하기임
 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며 말하기는 청자의 칭찬을 극대화하는 말하기임

13.④

① 요령의 격률을 어김 ② 겸양의 격률을 지킴
 ⑤ 찬동의 격률을 어김

14.①

▶ 선생님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함

16.①

② ㉠은 (나)에 해당 ③ ㉡은 (다)에 해당
 ④ ㉢은 (다)에 해당 ⑤ ㉣은 (나)에 해당

17.③

▶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공적인 대화에서는 삼가해야함.

19.①

▶ 상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거나 함부로 순서에 끼어들기에 ①의 조언이 가장 적절함.

20.②

ㄴ: 명찬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어김. ㄷ: 명찬이가 약속이 생긴 것을 거짓이라고 불 근거는 없으므로 질의 격률'에 어긋난 것은 아님. ㄹ: 명찬이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건 아니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건 아님.

21.①

▶ 통계자료는 친구 몇 명보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뢰성이 높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 (★)

ㄱ.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ㄴ.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상식적)
 ㄷ.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ㄹ.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ㄹ.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ㅂ.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